



2017년 봄 '추억 만들기' 4일 담양군 담양읍 담양대나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관방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담양대나무축제는 오는 7일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학생 객실 천장 절단...은화·다운양 찾기

세월호수습본부 3·4층 수색 돌입...7일째 진입 가능성

유류품 총 867점 발견...침로기록장치 수색 작업도 재개

이르면 오는 7일 단원고 여학생인 조은 화양과 허다운양 찾기에 나선다.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4층 수색을 위한 통로가 될 5층 전실실 천장 절단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후 5층 바닥(4층 천장)을 뚫으면 여학생 객실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선미측 5층 전실실 천장 절단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지난달 30일부터 절단작업을 시작해 이날 전체면적 440㎡ 가운데 405㎡를 마쳤다. 공정을 92%로, 5일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업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객실로 진입하는 통로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후 5층 바닥이자 4층 천장을 뚫어 4층 선미 여학생 객실에 진입하게 된다. 이 작업은 이틀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오는 7일 여학생 객실에 대한 첫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조은화양과 4층 중앙에서 행적이 목격됐던 허다운양이 머물렀던 곳으로 우선 수색구역이다. 하지만 심하게 찌그러져 수중수색 과정에서 전문 잠수사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수습본부는 또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부터 차근차근 진입로를 뚫어 중앙, 좌현으로 내려가며 3, 4층 내부를 수색하

고 있다. 동시에 바닥 쪽에 있는 좌현 곳에도 추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해역에서도 특별수색구역(SSZ 1) 수중수색을 마치고 'SSZ 2'구역 수색을 시작했다. 수색팀은 앞서 3일 오후 손지갑 1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수습된 전체 유류품은 총 867점(인계 75점 포함)이며, 뺏조각은 총 672점(수중수색 21점 포함)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를 찾는 작업도 재개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10일 침로기록장치를 찾기 위해 조타실에 다시 진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침로기록장치가 조타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6~28일 조타실에 진입·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침로기록장치는 선박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선체 자체가 종이에 그래프처럼 기록하는 장치다.

지금까지 세월호 항적과 관련해선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침로기록장치가 잠수 원인 해결의 또 다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선체조사위는 조타실에 재진입, 침로기록장치 외에도 복원이 필요한 장치를 추가로 찾을 계획이다.

한편, 대선일인 오는 9일에는 작업자들의 투표를 위해 3주만에 수색이 일시 중단된다. 앞서 4일에는 목포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직원, 선내정리업체 코리아살배지 직원들이 목포 북항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해질 19:21 달뜨기 14:05 달지기 02:35

비 내리는 어린이 날

밤 한때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이 치는 곳이 있었다.

지역별 날씨(°C)

광주	17/26	보성	15/23
목포	16/22	순천	16/24
여수	16/22	영광	15/24
나주	15/25	진도	15/23
완도	16/22	주남	16/26
구례	15/24	산남	14/25
강진	15/24	남원	16/25
해남	14/23	축산도	13/19
장성	15/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1.5~2.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남동~동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남동~남	1.5~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남동~남	1.5~2.5	남서~서	1.5~2.5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	☀	☁	☁	☁	☁	☀
11/21	10/24	12/27	14/22	14/26	15/27	14/28

9일 대선 투표일 비...“한표 꼭 행사를”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장을 찾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우산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오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차 확대돼 9일 낮부터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강수량은 5~20mm다.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모든 해상에서 1.0~2.0m로 일 전망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6개월만에...전담수술팀 운영 등 개선책 결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해 10월 중증소아환자 사망과 관련 지정 취소된지 6개월만에 재지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취소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6개월 만에 재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평가는 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구성된 권역외상·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이 맡아 사업계획서 서면심

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성·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취소결정 이후 병원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TF팀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미세혈관수술 전담팀 등 외상전담수술팀 운영, 사지접합전문병원 외래임상교수 협약, 외상센터 원내 모니터링 강화, 광주시·의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구급대원 의료지도 확대운영 등의 시행방안을 추진했다.

재지정 평가가 chae@kwangju.co.kr

“돌봄교사 해고는 인권도시 위배”

광주인권증진시민위 의견서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공채로 전환하면서 134명의 교사가 집단 해고될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4일 광주시교육청 조동 돌봄교사 공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교육청이 공정성을 내세우며 채용방식을 시험을 통한 공채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위탁 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뀐 돌봄교사 134명은 갑작스러운 채용방식 변화로 집단으로 해고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동안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광주인권증진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결정으로 인한 돌봄교사들의 집단 해고 상황은 이러한 인권도시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 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최권일기자 cki@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20일 개막

AI 여파로 지연...민속놀이·연날리기·판굿 등 풍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연기됐던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축제가 오는 20일 개막한다.

남구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 제35회 고싸움놀이축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고싸움놀이를 주제로 한 동화구연대회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사물놀이, 민속놀이, 연날리기 시연, 고살 고싸움놀이 진행된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공연,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버블쇼도 선보인다.

오후 7시 45분에는 고싸움놀이보존회가 개최를 선언하고, 가야금 병창과 전통문화연구회 ‘열수’의 판굿 공연, 풍동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이어진다. 이틀째인 21일에는 칠석동 농악놀이, 최수영 어방놀이, 진도 북놀이 등에 이어 오후 2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고싸움놀이가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문화재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김형호기자khh@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